

* 팀NO : 2019-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베트남 (팀) 공항 : 하노이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베트남 북부 박성, 하이퐁

3. 사역기간 : 2019년 11월26일(화) ~ 12월 3일(화) / (7)박(8)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전사	김 석영 Kim Seok Young	6	0	81-61					
2	총무	전사	송 계월 SONG KIE WOLL	6		91-1112					
3	서기	전사	이 수연 Lee Su YEUN	6	0	94-762					
4	회계	전사	김 지선(민석) Kim in Seok	6	0	88-774					
5	의료	전사	곽 경숙 Gwak Gyeong suk	6	0	89-681					
6	부회계	전사	이 현숙 Lee Hyeon suk	6	0	95-1264					
7											
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수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선교 소감문

베트남 3팀 이름 김석영

오래동안 기도하며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베트남 북부 선교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호치민시에 거주당시 주님께 약속기도 드린 것처럼 귀국해 베트남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주님이 우리교회로 인도해주신 형제 자매들, 귀국해 교회가 없어 예배 못드린다는 그들의 말에 시작한 선교, 어느덧 8년 후 남부에는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씨튼은혜교회가 베형제의 헌신으로 세워져 매주일 15-20여명이 예배드린다.

이제 북쪽지방으로 귀국한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린 양한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주소서 기도하며 팀원들과 나갔을 때 때로는 회사관계로 밤늦게, 아니면 아침일찍, 주말을 통해 모두 만나게 하셨다, 5-10년간 지난후의 만남이지만 늘 말씀을 주며 권면하였기에 낯설지 않고 너무 은혜롭고 반가웠다. 가정예배지를 나눠주며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권면 하였다.

낮동안의 사역을 위해 타이 목사님을 초청 협력사역을 하고자 할 때, 마약치료센터를 통해 공안들의 목인하에 귀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사역이 진행되고 가정교회가 세워짐을 보았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통역역시 주님이 예비하신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은혜롭게 해주셨다.

십자가 색종이 접기와 글없는 그림책, 십자가 왕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간 붉은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기록하며 색종이로 접은 십자가를 꽃는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은혜가 넘치며 북부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셨다. 죄인인 나를 구속해주신 은혜에 감사해 생명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과 소원을 주시고 직접예비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롱시의 편목사님교회에서의 간증과 찬양을 동,악기연주모두 은혜로왔다. 단지 시간조정을 잘못해 어린이 사역을 충분히 못함이 아쉬웠지만

늘 일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년의 선교를 기도해 본다.

선교 소감문

베트남 3팀 이름 이 수 연 전사

8월초 베트남 단기선교를 마친후 팀장님은 북부에 살고 있는 귀중한 외선부 자제들을 언급하셨다.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방해야겠으니 협조를 구한다고 하셨다. 선교후 주님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팀원들은 동의하였고 곧 팀훈련에 돌입하였다. 건강상의 문제로 집안 사정으로 위기는 있었으나 팀훈련을 잘 마칠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하기로한 8~10명의 외선부 자제 심방 계획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기에 정탐하는 사역으로 임려가 없진 않았으나 하나님 하실일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노이 선교를 향해 출발했다.

밤에 도착한후 바로 다음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예비되어 있었다. 파이 목사님의 협력으로 마약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사 쓰영을 '근원의 복' 교회에서 만났고 그곳에는 같은 사역을 하시는 지도자부부 두분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들의 귀한 사역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북부사역의 비전을 보게 하였음에 감사를 드린다. 다음날은 마약치료센터를 직접 방문하였다.

8명의 청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빛으로 권의길을 걷고 있음에 우리모두 하나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원차엔 마약치료센터에서 구원받고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중 가정교회에 방문하였다. 이곳엔 재력들이 마약을해서 재산도 탕진하고 마음고생도 많았던 노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정복에서 운영하는 마약치료센터도 있으나 변호사를 보지 못했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살게 된 재력들 통해 교회에 매진된 부모들이었다. 비록 개탄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곳 교회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나눌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였다. 하나님이 제신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임을 확인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후 탄, 김영, 빅, 번, 랑, 부영, 썸리, 우리가 기도하며 만나길 원했던 형제, 지매 모두를 만났고 신앙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기쁨의 만남을 가졌다. 윤영범선교사님의 농아사역도 들으며 귀한 헌신적 삶을 듣고 베트남 영혼들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귀한일을 보고 보임받을수 있음에 감사했다. 하롱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하롱에는 공인교회가 이곳 한데임을 알게되었고 연례한 가정교회사역로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 목사님을 알게되어 앞으로 협력사역의 장이 넓게 펼쳐질것을 기대할수 있었다.

늘 선교를 마치며 고백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교에 저를 조금이라도 써주심에 감사고백하였고 모든것은 주님의 영광임을 돌려드리다.

2019. 12. 3

선교 소감문

베트남 3팀 이름 김지선 전사

이번 선교는 총현교회 외선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귀족한 베트남 북부 형제 자매를 찾아가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살펴보고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어 목사님 선교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페이스북을 통해 말씀을 보내면 그자랑로 말씀을 보는 형제. 몇몇 형제들은 주변에 교회가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해 믿음이 정체된 모습도 보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동행한 타이 목사님을 통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며 말씀을 전하며 갓고갈 자랑도주며 관양을 부르며 율동을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었다.

부임자의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막 집을 나서는데 공간이 오는것을 보았다. 아~ 신교가 들어갔구나 순간적으로 느끼며 주님 보셨어 주님을 감사 드리며 밤영성을 개척하여 차에 올라 탔다.

베트남 남쪽에는 베라는 형제가 귀족후 신학을 하고 주일이면 15~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와같이 베트남 북쪽에도 가정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모든 인재를 가운데 합세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소감문

베트남 3팀 이름 송 계 월 전사

빛음이 식여가는 것이 아비가 느낌이 온때면 즐겁게도 선교의 길을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계이름이 지나갈때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선교지로 인도하신다. 매번 8월초가 되면 베트남 북지역 (호치민)으로 선교를 다녀왔다.

올해는 가정사정 핑계로 한해를 쉬었다. 때때로 선교팀은 만났을때마다 피로감을 갖고 있던중 뜻밖에 11월말 베트남 남 (북지역. 하노이) 선교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기쁨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온전히 맡기고 돌아왔다.

처음으로 받은 비전은 지역으로 어떻게 사역이 펼쳐질까 기대만 성심으로 있었고 한편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접근 약점으로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땅을 밟는 순간부터 감동사바지고 힘이 솟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것을 의지하며 계획하신대로 실행했습시다. 고백했다.

또한 8월간 사역기간이 긴것은 아닌가? 반신반의 하였으나 정반대로 역사가 모자람 정도로 비전실현으로 계획하고 계셨다.

주님게도 은혜를 댈 11시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훈련으로 첫날은 평제, 4시에 잠을 떠나 2시간을 오로바이로 달려온 그 형제들 우리는 만나기 위하여 아나나온에 앞전하게 참예를 모장시켜 아내가 받들어 주셨다고 감사로 형제, 우리들 감동케 했고 그들의 훈련과치들 잊지 못하고 있었으나 느낌수라 있었다.

교회가 없어 믿음생활을 못하느니는 그에게 기도나 찬양으로 믿음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주님께 의지했다.

그로부터 보고받은 형제. 자매들을 때로 그들의 집에서. 훈련에서. 식당에서 장소를 초빙해나 다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예배찬송, 율령으로 믿음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또한 현지교회, 가정교회. 여러곳을 방문, 함께 예배드려 어진이 신령으로 함께 하였다.

특히 생각도 못할곳 바깥치료센터를 방문케하여서 어두운곳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해심을 인도하셨다.

국가에서 성경을 전혀 쓰지않는 바깥으로 신유하는 젊은이들은 (20-30세) 10~15명 부부의 후원으로 장담치료를 할수 있도록 전도사들이 힘있게 응징하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아이 전도사들이 열심히 사명감으로 돌보고 있었다.
그중 한쪽어른 장하는 집사전도사를 만나기 하셔서 가정교회 등 방문시
통역을 해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

기초부터 주님의 복음으로 기쁘다 더 큰 은혜로 더 기쁘게 기쁨이 넘쳤다.
내면에 다시반성점을 약속하고 돌아오는 밤침묵은 무거웠고 저를 위하여 복음은
준비하여 도움을 주신다는 숙제를 하나씩에 간구하여 회향을 가져본다.

하느님! 이번 선교지에서 있어온 복사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축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선교 소감문

베트남 3팀 이름 과 경숙 전사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컸다 과연 내가 감해내서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다. 그런데 기도중에 참된 제자는 주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들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온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듯이 복음은 타인들이 살고있는곳이 추수할 곳이란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것이 있다는것을 알았다 이번 사역은 정함사역이라 귀중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남은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쉬게하지 못하게 하셨다 때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임 전도사임을 받게하시고 그교회에서 십자가 잡기 찬양과 율동으로 사역하였다 수임전도사님은 한글말씀 잘 하셔서 통역해주니까 넘 좋았다 하나님의 예비 하심에 다시한번 감사했다. 마약치류센터 방문했는데 청년들의 영혼이 준비 있어서 직음에는 좀 두려웠다. 그러나 저희 팀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청년들 영혼에서 빛이 나고 웃음꽃이피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약치류센터 가정교회를 통해 북북 선교의 비전을 보았다 마약치류센터 지도자, 학생, 부모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했다 CMA 교회 전도사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 평창에 전해가서 하동전체에 허가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 가정교회 하나.하나 세워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심에까지 베트남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것보다 사역하게 해주심에 감사 앞으로의 비전을 보게 하심에 감사 마약으로 노동자가 흔들리는 청년도있었다 마약 치류로 말노자가 전도사가 되어 마약 치치과를 사역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자라야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 예선복 형제들이 이끌어간 오트바이로 2시간 넘게 달려 호텔로 찾아왔다 함께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많은 교제를 나누었다 번. 북영. 쟈. 리 가정은 귀한 방문하였다. 탄. 그영. 랑. 박. 번. 보영. 쟈. 리 다 만나게 하심에 감사 이선복에서 싸났던 두분 감사님께 노르나 헌신에 감사 앞으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것을 목표로하며 좋겠다는 생각을했다 이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선교 소감문

베트남 3팀 이름 이 현숙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 합니다

지난 8월 호치민, 안저앙으로 남북선교를 다녀왔다

김석영권사님 이번에 북쪽 하노이, 박린의 귀국한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가자고 하셨다 우리 총회교회에서 믿음생활하다 귀국한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약해진 걸음을 회복시키고 북북 사역은 시작...

조금은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언어훈련과 교육은
받고 드디어 출발 --

11월 26일 강성은 목사님의 말씀

“골로새서 11: 28 ~ 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여 하노이 도착. 타이 목사님과 현지 사역자인

전도사님을 만나 마약치로 신터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으로

사역은 시작되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만민자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온전히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통역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 우리는 힘을 다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